

서울경제

Seoul Economic Bulletin

3

March 2006

| 이달의 이슈 |

최근 서울 경기 향방은 어디로 ...

박 희 석(서울시정개발연구원 산업경제센터 부연구위원)

| 경제포커스 |

청계천 복원사업 이후 도심산업의 동향과 전망 II

정 병 순(서울시정개발연구원 산업경제센터 연구위원)

종로 귀금속·보석 클러스터의 재발견

박 래 현(서울시정개발연구원 산업경제센터 연구위원)

| 자치구경제이슈 |

「용산전자상가 발전 10개년 계획」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최 오 근(용산구청 생활복지국장)

| 경제동향 |

경기/고용/금융/부동산

| 부록 |

통계표

서울경제

2006.03

차 례

이달의 이슈	3	최근 서울 경기 향방은 어디로 ... 박희석(서울시정개발연구원 산업경제센터 부연구위원)
경제포커스	9	청계천 복원사업 이후 도심산업의 동향과 전망 II 정병순(서울시정개발연구원 산업경제센터 연구위원)
	22	종로 귀금속·보석 클러스터의 재발견 박래현(서울시정개발연구원 산업경제센터 연구위원)
자치구경제이슈	33	「용산전자상가 발전 10개년 계획」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최오근(용산구청 생활복지국장)
경제동향	43	요 약
	44	경 기
	52	고 용
	60	금 융
	68	부동산
부록	79	통계표

최근 서울 경기 향방은 어디로 ...



박희석 부연구위원*

hspark@sdi.re.kr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산업경제센터

국민총소득(GNI) 2001년 이후 최저치

한국은행은 최근 보도자료 (3월 22일자)를 통해 교역조건을 감안한 실질적인 국민소득인 GNI가 2005년 중 0.5% 성장한 것으로 잠정 보도하였다. 이러한 GNI 증가율은 2003년 1.7%를 기록한후 200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2005년 중 실질GDP성장률 (2000년 기준) 3.9% 과도 큰 대비를 나타내고 있다. 가시적인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아직까지 불투명한 시점에서 0.5% GNI 증가율은 경기회복에 대한 우려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서울이 전국경제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비중을 고려할 때 향후 서울의 경기 향방에 관심이 집중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 이용가능한 자료를 토대로 서울의 지역경기 상태를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중심으로 경기, 소득, 지출 세가지 측면에서 서울의 경기상황을 진단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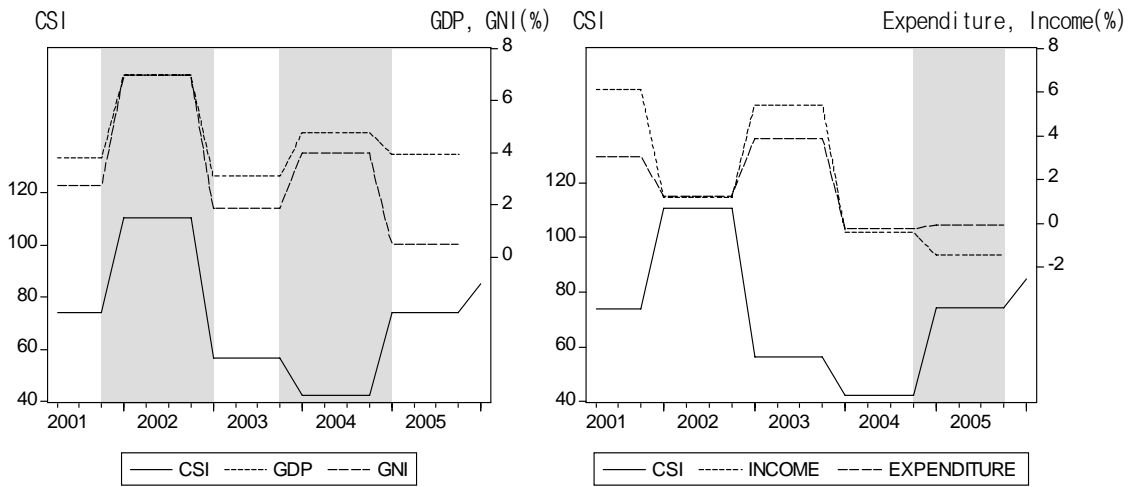
최근 GDP와 GNI 갭 점차 확대 2005년중 3.4%P

우선, 서울의 경기상황을 분석하기에 앞서 실질GDP와 GNI를 중심으로 최근 몇 년간 전국의 경기상황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전국 경기는 2001년이후 기간별로 두개의

* 저자 학력, 경력 및 최근 연구:

- 캔사스주립대 (Kansas Stat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한양대 경제학 석·학사
- 포스코경영연구소 (책임연구원), 고려증권 부설/고려종합경제연구소 (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R.A)
- 부동산 경기변동이 서울시 세수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4,12) 등의 다수

상승국면 (2001년 4/4분기~2003년 1/4분기, 2003년 4/4분기~2005년 1/4분기)을 나타내고 있으며 두 번째 상승국면 (4.7%)은 첫 번째 상승국면 (6.9%)보다 증가율이 둔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림 1> (a) 음영 부분 참조). 또한 2001년부터 2004년 기간 중 GDP와 GNI의 갭은 1%p 내외를 보이고 있으나 2005년중에는 그 차이가 3.4%p로 크게 확대되었다. 이처럼 GDP와 GNI 갭이 점점 커지고 있어 대외부분에 민감한 우리경제는 향후 전반적으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는 불투명할 것으로 판단된다.



(a) 서울 CSI와 전국의 GDP, GNI 추이

(b) 서울의 경기, 소득, 지출 추이

<그림 1> 서울과 전국 경기 추이

주: 분기별 자료의 추이를 쉽게 파악하기 위해 각 분기별 전년동기비 증가율을 단순 평균하여 나타내었음

서울 경기 전국에 비해 2004년 1/4분기부터 상승세 지속

서울과 전국 경기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의 현재경기판단 CSI (소비자태도 지수)와 전국의 실질GDP, GNI 간에 추이를 비교하면 2003년 3/4분기까지 서로 비슷한 추세를 보이다 이후 최근까지 상이한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서울의 CSI의 경우 2004년 1/4분기 (42.0)부터 2006년 1/4분기 (85.0)까지 상승세가 이어져 전국과는 달리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점차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100을 하회하고 있어 본격적인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의 근로자가구 소득 증가율 최근 들어 악화

서울의 경기를 소득, 지출 측면에서 판단할 수 있는 대리변수로 근로자가구 소득 (이하 소득)¹⁾, 근로자가구 가계지출 (이하 지출) 등의 자료를 CSI (이하 경기)와의 관계를 상호 비교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b) 참조). 서울의 경기는 2004년 1/4분기부터 천천히 개선되고 있지만 소득 증가율은 2003년 연평균 5.4%를 기록한 뒤 계속 하락하여 2005년 중에는 2001년 이후 최저치인 -1.5%를 기록하고 있어 2003년 4/4분기 이후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출과 서울의 경기도 소득과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2004년 4/4분기부터 -0.1%를 기록 상승세로 반전된 양상을 나타내고 있어 미미한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 서울의 경기는 호전되고 있기는 하지만 소득과 지출 측면에서 최근 마이너스 (-)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어 본격적인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06년도 1/4분기 서울 경기가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서울지역 경기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도 배재할 수는 없다.

<표 1> 시차관계

서울지역 지표	후행(lag, t-i) 및 선행(lead, t+i) 관계	
	전국 GDP	전국 GNI
경기	동행 (0.6995) 또는 1분기 후행 (0.4888)	동행 (0.5433)
소득	4분기 후행 (0.6182)	4분기 선행(0.5259) 또는 4분기 후행 (0.4913)
지출	4분기 후행 (0.7768)	4분기 후행 (0.6257)

서울의 경기 전국대비 1~4분기 선행, 향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 증가

교차상관 (Cross-Correlation)을 이용하여 서울과 전국 경기와의 선·후행성을 파악해 보면 서울의 경기는 전국보다 일반적으로 1분기에서 4분기 정도 선행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참조). 세부적으로 전국 경기 (GDP 기준)는 서울 경기 (CSI 기준)에 비해 동행 또는 1분기 후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서울 지역의 소득과 지출 측면은 전국 경기에 비해 평균 4분기정도 선행성을 가지고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1) 근로자가구 소득은 가구의 실질적인 자산의 증가를 가져온 현금 및 현물의 수입을 말하는 것으로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의 합으로 구성된다. 경상소득은 가구 및 가구원이 근로의 대가로 받은 일체의 보수 (근로소득)와 자영업으로부터의 가계전입소득 및 사업이윤과 부업소득 (사업 및 부업소득) 그리고 이자, 배당금, 임대료 등 재산적 수입 (재산소득), 이전소득으로 세분된다.

경기 진작을 위해 한시적 세제 혜택 필요

향후 서울시는 경기회복을 위한 정책과제로 자영업자, 중소기업체 등의 경제활동에 저해되는 규제사항을 체계적으로 점검하여 완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증가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근로자가구의 실질소득보전을 위해 한시적으로 세제 혜택 등의 정책을 신축적으로 활용하여 서울지역 경기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다. 대외적으로는 서울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이미지 제고, 외국인 투자 유치 등을 위한 노력도 꾸준히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SDI**